

# 김희선, 막장 버무린 '블랙의신부'... "욕하면서 보게 되죠"

결혼정보회사 소재 흥미... 넷플릭스 세계 8위 데뷔 30년 차... "요즘 해외 인기 실감하고 있어"

데뷔 30년 차인 배우 김희선(45)은 요즘 해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신부' 공개 후 자고 일어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 만명씩 늘어 놀라곤 한다. 5월 막을 내린 드라마 '내일'을 통해 해외 팬이 부쩍 늘었는데, 블랙의신부가 방점을 찍었다. 공개 이틀 만에 세계 넷플릭스 8위에 오르는 등 호응을 얻자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며 얼떨떨해 했다.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해외에서 팬 선물도 정말 많이 왔다. 예전에는 주로 중국어로 편지가 왔다면, 요즘은 아랍 등 여러 나라에서 선물도 오더라. 아침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체크하는데, 곧 100만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난 SNS 세대가 아니다. 싸이월드가 마지막이다. 인스타를 자주 하라고 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올리고 있다."

블랙의신부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렉스' 이야기다. 결혼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 안에 도사린 복수를 담는다. '서혜승'(김희선)은 남편의 불륜과 죽음으로 인생이 산산조각난다. 렉스에서 내연녀 '진유희'(정유진)와 만나고, 복수하기 위해 2조 자산가 '이형주'(이현욱)와 결혼을 꿈꾼다.

넷플릭스에서 불륜, 이혼 등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소재를 다룬 점이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김희선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소재로 한 집에 끌렸다. 캐스팅 당시만 해도 '오징어게임'(2021)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않았을 때다. "넷플릭스 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소재"라며 "외국인들엔 조건 속에서 사랑

을 찾고, 사랑을 '등급 매긴다'는 자체가 어색할 수 있다. 신선하면서도 욕하면서 보는 자극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짚었다. "어느 나라나 사람의 욕망은 똑같은 것"이라며 "잘 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왕이면 능력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잘생기고 예쁘면 더 좋을 거다. 그런 욕망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김희선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두고 바람 피운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음식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 김치찌개, 스테이크만 먹고 살 순 없으니까. 아내 같은 사람 만나 봤으면, 좀 반대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혜승은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 신분으로 사는데, 커리어 쌓고 회사에서 대화도 잘 통하는 여자에게 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면서 "나도 남편과 결혼한지 16년 정도 됐고, 중학생 딸을 뒤(혜승과) 상황이 비슷하다. 내 주위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 속상하겠지만,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감했다.

"극중 신랑이 짐싸서 나갈 때 '우리 '민지'는 어떡할래'라고 한다. 결국 둘 다 행복하고 아이를 책임져주는 조건이라면 보내줄 것 같다. 오랜 시간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으면 아이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 같다. 나중에는 혜승이 남편에게 '그대 보내줄게. 이혼할게'라고 하지 않느냐. 나도 그럴 것 같다. 120세 시대 아니냐. 서른 살에 결혼해도 90년을 같이 살라고 하면 어휴~. 남녀가 만나도 2~3년 안에 깨지는데, 난 16년을 같이 살고 있다. 제일 오래 만난 남자 중 한 명인데, 하루 하루 내 삶의 기네스를 경신하고 있다.(웃음)"

특히 결혼식에서 신랑이 바뀌는 결말은 파

격적이었다. "모니터할 때 나보다 딸과 친정엄마가 더 좋아하더라. '차석진'(박훈)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다"면서 "형주와 석진이 텍시도를 같이 맞추고, 서로 사인 주면 들어오라고 했을까. '어떻게 타이밍 딱 맞게 들어오지?' '내가 나가야 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가면파티 신을 찍을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면 본을 뜨는 데만 4시간 정도 걸렸는데, 파티신 첫 촬영 때 문제가 발생했다. "가면이 다 안 말라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 도저히 연기를 할 수 없었다"며 "제작진이 3시간 회의 끝에 촬영을 접고, 배우들은 가면을 다시 가지고 이태원으로 가서 수정했다"고 회상했다. "파라다이스시티 클럽을 열흘간 빌렸는데, 하루 촬영을 날려버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사실 클럽 빌리고, 보조출연자, 스태프 등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날을 배우들에게 양보해줬다. 덕분에 9일은 아무 탈없이 파티신을 촬영했다"고 돌아봤다.

블랙의신부는 이색적인 홍보로 시선을 끌었다. 김희선과 이현욱(37), 정유진(33), 박훈(41), 차지연(40)은 지난 13일 GS샵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처음에 '홍소핑에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 나"라며 "아, 배우가 무슨 홍소핑에 나가"라고 하니 "저희는 선배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 멧갈 다 읽고 쇼호스트에게 돌발 질문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넷플릭스 홍보 방식에 놀랐다. 어느 분야에서 1등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다. 가면 파티신 세트를 때와서 장식하고 돈도 많이 들었다"며 "'콘대' 마인드로 두루뭉개 했는데 참신하더라. 처음에 결사 반대했는데, 넷플릭스 홍보팀한테 죄송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는 상류층 사회의 이면을 보여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들의 결혼 비즈니스를 통해 속물적인 현실을 비판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가진게 많은 뿐"이라며 "형주 엄마 '노여사'(김미경)가 손자 이블 덮어주면서 '집이 운동장만하고,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면 뭐하나. 집 안에 온기가 없는데'라고 하지 않느냐. 너무 많이 가진 자는 더 의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무진씨 노래 '신호등' 중에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결연 아무도 없는'이라는 가사가 있다"며 "예전에는 '나도 부자되고 싶다' 했는데, 부자라고 하루에 밥 열 끼 먹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위치 때문에 더 외롭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희선은 내년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93년 CF 모델로 데뷔, 그해 드라마 '공

룡선생'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1990~200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7년 사업가 박주영(48)과 결혼해 딸 연아(13)를 낳지만, 40대 중반에도 한결 같은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

"예뻐다"보다는 "지금도 예쁘다"가 좋다.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사람 있느냐. 계속 '예쁘다'가 좋다. 20년 넘게 인터뷰할 때 나의 연기 매력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 난감하다. 오히려 다른 분의 매력을 말하라고 하면 쉽다. 다른 분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유쾌함, 솔직한 아닐까. 내 연기의 매력은... 아직 나도 내 연기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 하하."

## 이정재·강호동, 첫 '청룡시리즈어워즈' 주인공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정재와 티빙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 강호동이 첫 '청룡시리즈어워즈' 주인공이 됐다.

이정재와 강호동은 지난 1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1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드라마부문 남우주연상과 남자에능인상을 받았다.

이날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은 넷플릭스 'D.P.'에게 돌아갔다. 여우주연상은 티빙 '유미의 세포들' 김고은이 받았다.

또 남우조연상은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학주, 여우조연상은 넷플릭스 '지옥' 김신록이 차지했다. 신인남우상과 신인

여우상은 'D.P.' 구교환과 '오징어 게임' 정호연이 각각 받았다.

예능 부문에 최우수작품상은 '환승연애'에게 돌아갔다. 여자예능인상은 '셀럽은 회의 중' 셀럽파티브가 받았다. 신인남자에능인상은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 카이, 신인여자에능인상은 쿠팡 'SNL 코리아' 주현영이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인기스타상은 'D.P.'의 정해인, 티빙 '해피니스'의 한효주, 디즈니 플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의 강다니엘, 왓챠 '시멘틱 에라' 박재찬·박서함, '환승연애'의 이용진이 차지했다.

특히 이날 강호동이 수상하자 예능계 라이벌인 유재석이 그를 찾아와 축하해주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췌아춤'을 함께 했다. 강호동은 유재석을 끌어 안고 반짝 들어 올렸고 주변 사람들이 크게 환호했다.

스포츠클럽이 주최한 '청룡시리즈어워즈'는 국내 최초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다. MC 전현무와 소녀시대 윤야가 사회를 봤다.

## 에스파, '빌보드200 톱3' 이어 '아티스트100'도 3위 기록



메타버스 그룹 '에스파(aespa)'가 두 번째 미

'톱 앨범 세일즈' 등 빌보드 3개 세부차트 1위

니앨범 '걸스(Girls)'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다른 중요 차트도 휩쓸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23일 자)에 따르면 에스파는 아티스트의 미국 내 영향력과 인지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미국 음악·엔터테인먼트 분석 회사 루미네이트(Luminate)(옛 닐슨 뮤직) 집계로 이 주 가장 인기 있는 앨범들을 판매 데이터에 따라 순위를 매긴 '톱 앨범 세일즈'를 포함해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등 3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또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 5위,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6위, '핫 트렌딩 송스' 주간 차트 6위,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42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걸스의 동명 타이틀곡 '걸스'를 비롯해 선

공개곡이자 수록곡인 '도깨비불(Illusion)', '라이프스 투 쇼트(Life's Too Short)'까지 차트에 진입했다.

에스파는 앞서 공개된 이번 주 차트 예고 기사에서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차트에서 전작 '새비지'가 기록한 20위보다 무려 17계단이나 상승했다. 특히 3세대 K팝 대표 걸그룹들인 '블랙핑크'(2위) '트와이스'(3위)에 이어 K팝 걸그룹 중 세 번째로 톱3를 기록했다.

에스파는 이번 앨범 '걸스'로 선주문 161만 장을 기록, K팝 걸그룹 선주문 최고 수량을 찍는 등 돌풍을 예고했다. 첫 주 앨범 판매량 142만 6487장(서클차트 발표)으로 역대 걸그룹 초동 1위는 물론, K팝 걸그룹 최초 초동 밀리언 셀러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한편, 에스파는 오는 30일 오후 6시 SK윌림 픽핸드를 경기장에서 팬미팅 '미이 싱크. 에스파(MY SYNK. aespa)'를 연다.

## 유아인, 분노의 질주... 넷플릭스 '서울대작전'

다음달 26일 공개

배우 유아인이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이 다음 달 공개를 확정했다고 넷플릭스가 20일 밝혔다.

'서울대작전'은 1988년을 배경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드라이버팀 '상계동 슈퍼팀'이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카체이싱액션물이다. 유아인과 함께 고정표·이규형·박주현·옹성우·오정세·김성균·정용민·문소리 등이 출연한다. 유아인은 상계동 슈퍼팀의 최강 드라이버

'동욱', 고정표는 감성 총만 DJ '우삼', 이규형은 인간 내비게이터 '복남', 박주현은 바이크를 타는 변신의 귀재 '윤희', 옹성우는 맥가이버 같은 능력은 가진 막내 '준기'를 연기했다. 또 VIP 비자금 운반 담당 '이 실장'은 김성균이, VIP의 비선 실세 '강 회장'은 문소리가 맡았다. 오정세는 상계동 슈퍼팀을 작전에 끌어들이는 '안 검사'를 연기했다. 연출은 '임금님의 사건수첩'(2017) '코리아'(2012) 등을 만든 문현성 감독이 했다.

'서울대작전'은 8월26일 공개된다.

## 여수 촬영·제작 지원 영화 '한산' 27일 개봉

역대 최고 흥행 '명량' 후속작

여수시 설치한 세트장에서 촬영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오는 27일 전국 일제 개봉한다.

'한산: 용의 출현'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후속작으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전황을 뒤집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위대한 승리를 그린 작품이다.

제작사인 ㈜빅스톤픽처스는 2020년 6월부터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 야외 세트장,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 판옥선, 포구마울, 미니어처 세트장 등 55억 원 규모의 촬영장을 건립하고 돌산과 남면 등지를 돌며 촬영을 이어왔다.

여수시는 ㈜빅스톤픽처스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맺고 '한산' 영화 제작에 따른 지역경제 인센티브로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촬영기간 동안 영화 관계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약 5억 원의 지역 내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개봉과 함께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이순신 장군의 열이 살아 숨 쉬는 여수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영화 관계자가 지역 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컸다"고 말했다.

영화 개봉 이후 제작사는 여수시 영화관에서 '시인 초청 상영회'를 개최하고 감독과



출연배우의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